

2025년 4월 7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미국발 연쇄 폭락에 대한 대응 방안

한국 증시는 1) 탄핵 선고 이후 국내 정치 불확실성 완화에도, 2) 미국 증시의 연쇄 폭락 여진, 3) 트럼프의 관세 뉴스풀로우, 4) 미국 3월 CPI, 4월 기대인플레이션, 5) 삼성전자 잠정실적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중 변동성이 큰 폭 높아질 전망.

관세 우려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베트남이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미국산 제품 관세 0%로 하향 등을 제시함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이는 4월 10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려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 역시 완화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 이를 감안 시, 이번주에도 주식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관련 뉴스풀로우에 대한 민감도를 계속 높여갈 전망.. 국내 증시도 월요일 장 개시 이후 미국발 폭락 여파를 치를 것으로 예상. 또 반도체 수요 불투명성도 높아진 만큼, 8일 예정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의 수급 변동성 확대도 대비할 필요.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Market/ESG 이성훈
shl076@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4월 4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주 초반 공매도 전면 재개에 따른 2차전지 등 대차잔고 상위 업종을 중심으로 하락 출발한 가운데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국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 주요 이벤트를 소화함에 따라 양 지수는 하락 마감 (KOSPI -3.62%, KOSDAQ -0.92%)

주 초반 국내 증시는 전주 금요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재점화에 따른 미 증시 급락과 4월 2일 발표될 상호 관세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출회된 결과 양 지수는 급락세로 출발. 또한, 공매도 재개 속 2차전지 대형주를 중심으로 낙폭 확대 연출하며 공매도 전면 재개에 따른 수급 불안정도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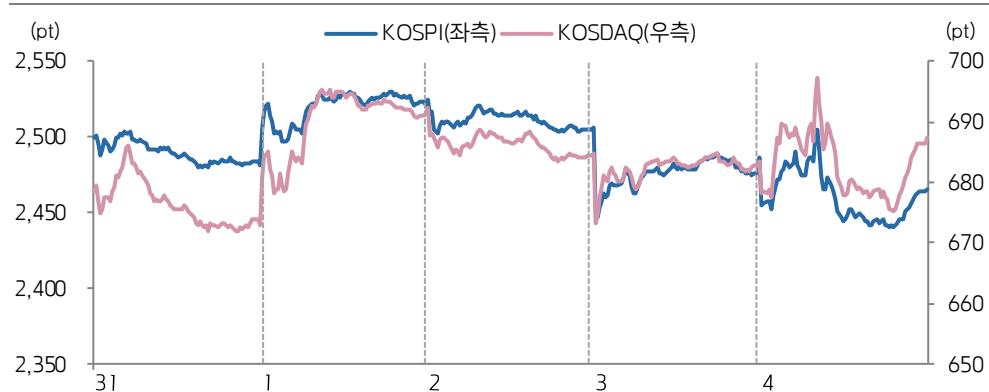
한편, 한국시간 4월 3일(목) 트럼프는 중국 +34%, 일본 +24%, EU +20%, 인도 +26%. 한국 +25% 등 60여개 개별 국가들에게 부과할 관세율을 발표, 예상 대비 강경한 스판스를 보이며 증시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는 상황. 모든 국가들에게 10%의 기본 관세율을 적용한 가운데 추가적인 상호관세율은 9일 발효 예정. 국가 간 협상까지의 기간이 적고 향후 개별 국가의 보복관세 우려까지 더해진 결과 미 증시는 시간 외 선물 시장에서 4%대 급락.

국내 증시도 상호 관세 영향권에 있는 국가인만큼 높은 변동성 장세 연출, 특히 반도체 등 주요 국내 수출 품목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는 소식에 반도체주 급락. 다만, 대통령 탄핵 확정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으로 코스피, 코스닥 등의 국내 지수는 주요국 대비 선방하는 흐름 연출. 특히, 원달러 환율은 대통령 파면 선고로 인해 장중 1,430원대 레벨까지 급락하며 탄핵 정국 해소 기대감을 극적으로 반영(다만, 이후 미중 갈등 우려가 부각되며 원달러 환율은 재차 1,460원대로 상승)

업종별로 종이/목재(+4.19%), 건설(+1%), IT 서비스(+0.77%), 오락/문화(+0.65%), 통신 (+0.14%)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전자(-7.12%), 기계/장비(-6.26%), 화학(-5.59%), 금속 (-4.7%), 제조(-4.65%)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5조 8,519억원)은 전기/가스(+100억원), 통신(+5억원), 부동산(-35억원), 비금속(-41억원) 순으로 순매수, 기관(+2조 780억원)은 제조(+16,400억원), 전기/전자(+8,415억원), 운송 장비/부품(+4,476억원) 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4월 7일	EU	센텍스 투자자기대지수	4월	-9.3	-2.9
		소매판매 (MoM)	2월	0.1%	-0.3%
	중국	외환보유고	3월	\$3,229.0B	\$3,227.22B
4월 8일	미국	NFIB 소기업낙관지수	3월	101.0	100.7
		한국 경상수지	2월	-	\$2,940.1M
	발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실적	삼성전자(잠정실적)			
4월 9일	미국	도매재고 (MoM, 잠정치)	2월	0.7%	0.3%
		한국 실업률	3월	3.0%	2.7%
	공개	미국 FOMC 회의록	-	-	4.50%
	발언	리치몬드 연은 총재			
4월 10일	미국	CPI (YoY)	3월	2.5%	2.8%
		근원 CPI (YoY)	3월	3.0%	3.1%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YoY)	3월	-	1.2%
	중국	PPI (YoY)	3월	-2.1%	-2.2%
		CPI (YoY)	3월	-0.4%	-0.7%
	일본	PPI (YoY)	3월	4.0%	4.0%
	파생	한국옵션만기일			
	발언	댈러스, 시카고,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4월 11일	미국	PPI (YoY)	3월	3.3%	3.2%
		근원 PPI (YoY)	3월	3.5%	3.4%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잠정치)	4월	57.9	57.0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지수(잠정치)	4월	54.1	52.6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이션(잠정치)	4월	4.9%	5.0%
	발언	세인트루이스, 뉴욕 연은 총재			
	실적	JP 모건체이스, 웰스파고, 블랙록 등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탄핵 선고 이후 국내 정치 불확실성 완화에도, 2) 미국 증시의 연쇄 폭락 여진, 3) 트럼프의 관세 뉴스플로우, 4) 미국 3월 CPI, 4월 기대인플레이션, 5) 삼성전자 잠정실적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중 변동성이 큰 폭 높아질 전망

4일(금) 미국 증시는 3월 비농업고용 호조에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 보복 관세,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등이 패닉셀링을 유발하면서 역대급 폭락세를 기록(다우 -5.5%, S&P500 -6.0%, 나스닥 -5.8%).

이날 발표된 3월 비농업 고용의 경우, 실업률(4.2% vs 컨센 4.1%)이 다소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신규고용(22.8만건 vs 컨센 13.7만건)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의 냉각 우려를 덜어낼 수 있었음. 그러나 4월 2일부터 본격화된 트럼프의 상호관세 리스크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면서 잇따른 증시 급락을 초래하고 있는 모습. 가령, 미국 장 시작 전 중국이 미국산 제품 34% 추가 관세 부과,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 군수기업 물품 수출 금지 등 전면적인 보복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중 무역분쟁 격화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 이 같은 미국 vs 여타 국가 간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경기 침체 전망은 1분기 실적시즌을 앞두고 기업 이익 추정의 신뢰성 저하, 벌류 에이션 레벨 다운 리스크 등과 같은 노이즈를 생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더 나아가, 트럼프는 소셜 계정을 통해 자신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파월 의장에게 금리인하 하기에 완벽한 시점인 만큼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식의 압박을 가한 상황. 이에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예상보다 클 것이며, 향후 분기 인플레이션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반박한 상태. 이렇게 트럼프와 파월 의장의 대립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은 연쇄 급락을 맞고 있는 주식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트럼프 풋, 파월 풋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여기서 베트남이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미국산 제품 관세 0%로 하향 등을 제시함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이는 4월 10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려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 역시 완화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 이를 감안 시, 이번주에도 주식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관련 뉴스플로우에 대한 민감도를 계속 높여갈 전망.

단기간이 폭락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대표 투자심리 지수인 Fear & Greed index가 4pt로 2020년 3월 판데믹(2pt까지 하락)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기술적, 낙폭과 대 인식에 따른 반등은 기대해볼 만. 다만, 하루 이틀 사이에 사태 진정되기 어려운 만큼, 변동성에 빈번하게 노출될 전망. 현재는 스태그플레이션 불안감도 높은 상태이므로, 주중 예정된 미국의 3월 CPI(헤드라인 2.5%YoY vs 2월 2.8%), 4월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이션 예비치(4.9% vs 3월 5.0%) 등 인플레 지표도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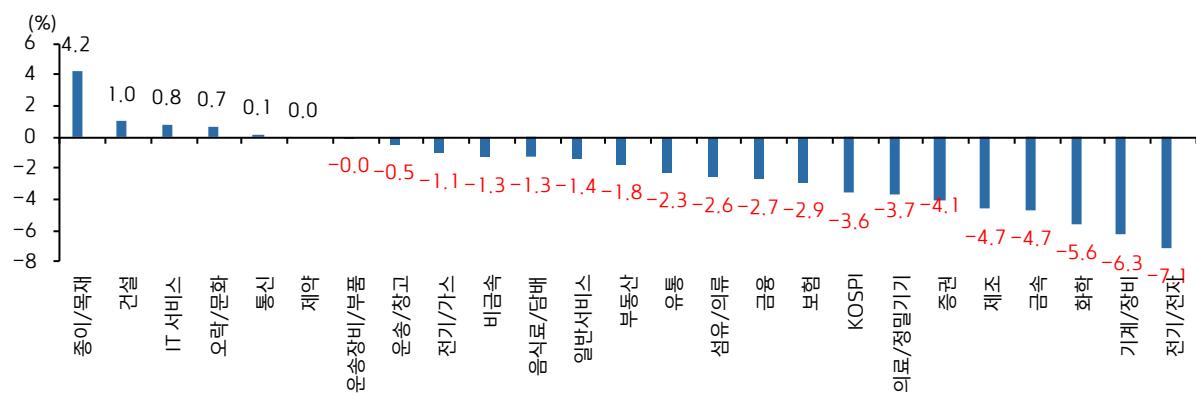
한편, 국내 증시는 4일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 이후 정치 불확실성 완화,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내수 회복 기대감이 생성되고 있으며, 이는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도 코스피(-1.6%), 코스닥(+0.4%)의 양호한 주가흐름에 기여했던 것으로 판단. 그러나 지난 2거래일간 S&P500(-10.6%), 나스닥(-11.4%)의 연쇄 폭락 충격을 받은 만큼, 후행 PBR 0.83배 레벨에서 하방경직성을 구축한 국내 증시도 월요일 장 개시 이후 일시적인 주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 또 반도체 수요 불투명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8일 예정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의 수급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2,465.42	-0.9	-3.6	-2.5	2.8
대형주	2,460.47	-1.1	-3.9	-2.2	3.0
중형주	2,706.86	0.4	-2.8	-4.6	1.8
소형주	2,109.96	0.8	-0.4	-2.5	0.8
코스피 200	328.67	-1.3	-4.2	-1.6	3.4
코스닥	687.39	0.6	-0.9	-6.9	1.4
대형주	1,622.02	0.9	-1.0	-9.3	0.5
중형주	604.50	-0.2	-1.8	-6.1	2.5
소형주	2,237.57	1.1	-0.1	-3.5	0.5
코스닥 150	1,137.70	0.8	-1.0	-9.5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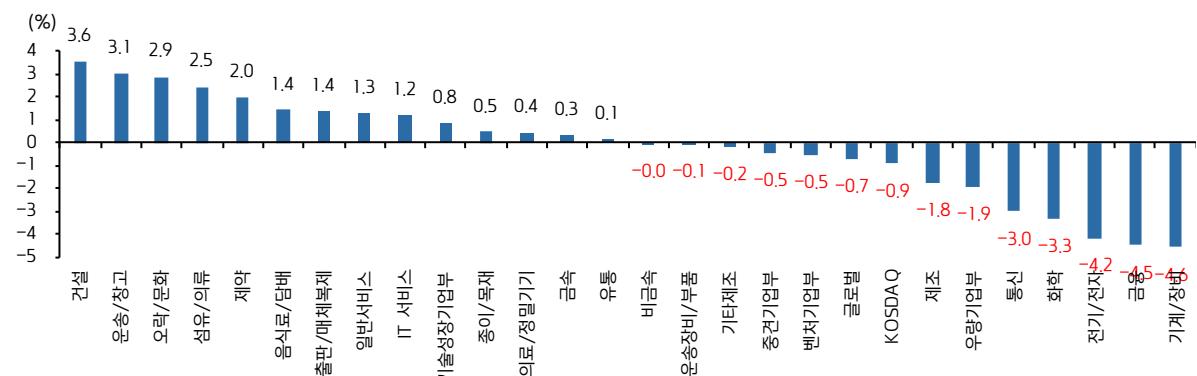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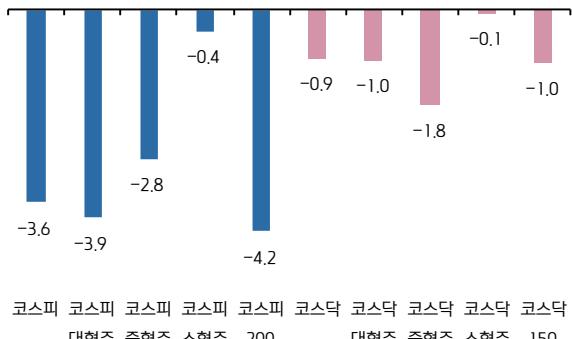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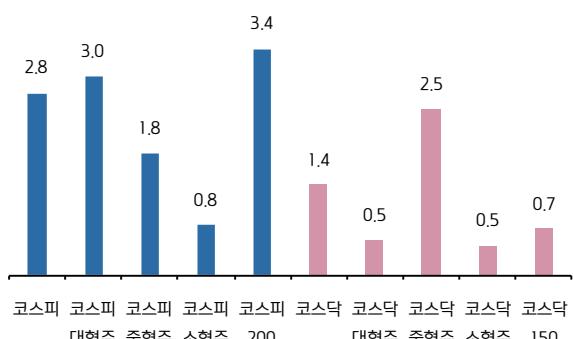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200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150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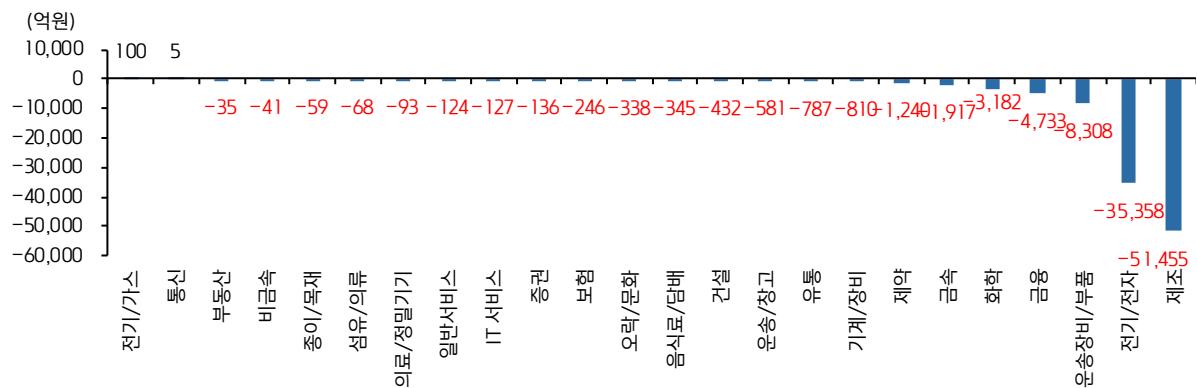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200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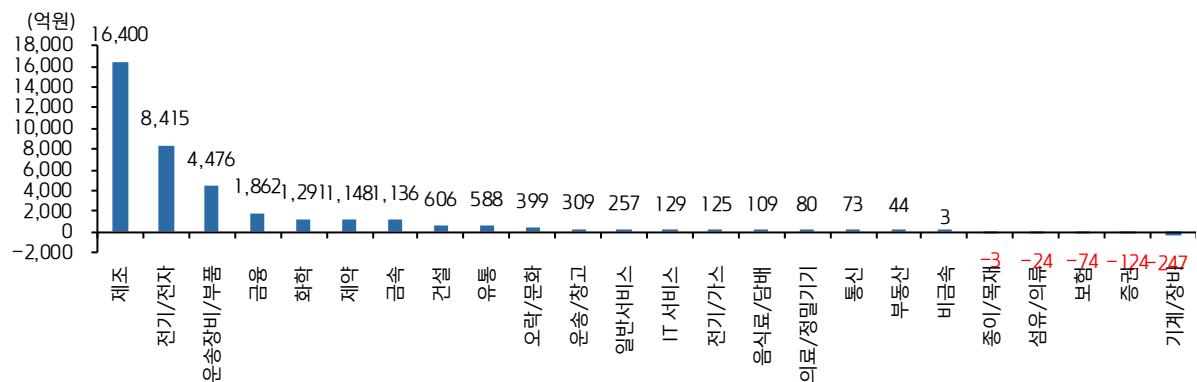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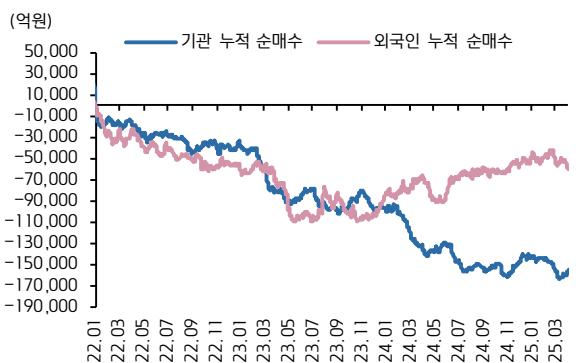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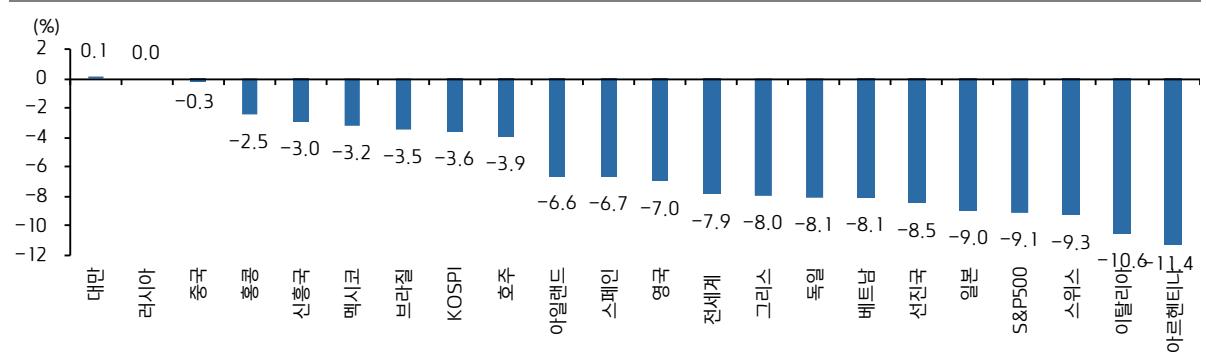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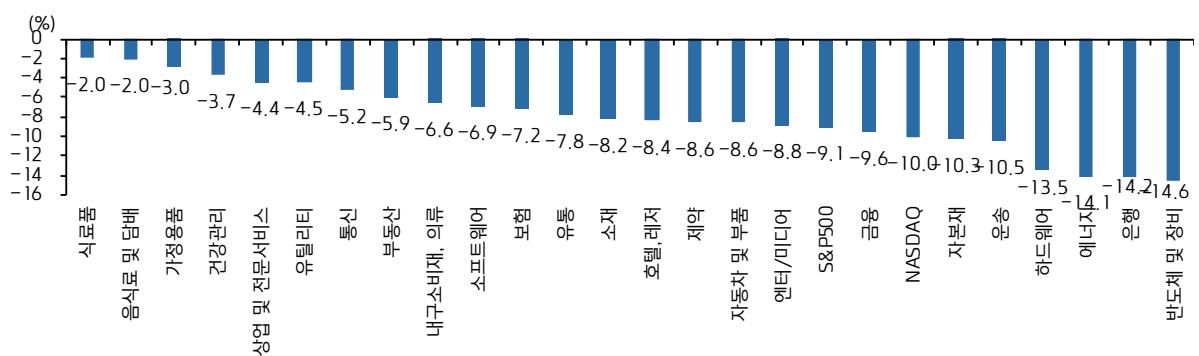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